

절망에서 희망으로

How to Get Up... When You're Down



한국 오늘의 양식사

신앙 성장 시리즈 ①

절망에서 희망으로

How to Get Up
- When You're Down

한국 오늘의 양식사

차례

발행인의 글 / 김상복 목사..... 4

1. 좌절감..... 7

2. 근심..... 19

3. 고통..... 33

4. 순종..... 47

인간의 네 가지 적



사람이 경험하는 문제들 가운데서 가장 자주 경험하는 것이 네 가지가 있는데 1) 디프레션 2) 염려 3) 시련 4) 슬픔 등입니다. 이 네 가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살아가면서 대처할 수 있다면 인생은 비교적 쉽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문제를 원만하게 다루는 기술이 부족하고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 고생을 많이 하고 불필요하게 어려움을 반복해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한국 오늘의 양식사」에서 독자들을 위해 이번에 내놓은 이 작은 책자는 여러분의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반드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독자들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읽으면서 여기 제시된 인간의 네 가지 적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는지를 배우고 훈련하여 능력을 기르기만 한다면 나머지 일생이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배우지 못하면 계속해서 같은 문제를 반복하며 어렵게 살 것입니다. 이 책자의 내용은 대단

히 현실적이면서도 상징적인 것들입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책자를 내기 위해 수고해 주신 「한국
오늘의 양식사」 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 상 복 목사

1

좌절감

독자들의 편지를 읽다보면 자신이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는 그럴 때 가장 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어떤 분은 수개월, 혹은 수년 동안 어떤 즐거움도 느끼지 못하고, 자신의 직업에도 별다른 흥미를 갖지 못한 채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이 예민한 상태에서 불안해하며 스스로를 아무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책과 자기 변명 속에서 무거운 죄책감을 느끼고 늘 피

곤해 하며 잠 못 이루는 가운데 고통과 통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쉽게 좌절감에 빠지는 사람일수록 심장마비를 일으키거나 암, 또는 관절염에 감염될 가능성이 보통 사람보다 더 높다는 것입니다. 계속된 긴장이 몸의 자연적인 기능을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좌절감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절망에서 희망으로>라는 주제에 적합하다고 하겠습니다. 나는 좌절감이 모든 고통 중에서 가장 나쁜 것 중의 하나라고 믿습니다. 좌절감은 대개 심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영적인 문제에 해당합니다. 사람들은 정신분석이나 충격요법, 또는 약물치료에 많은 돈을 들이고서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한 그 병을 고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좌절감을 이겨내기 위해 고안된 네 가지 필수적인 단계에 대해 서로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그 네 가지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것.
-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것.
-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것.
-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인정할 것.

하나님은 이러한 메시지를 사용하여 고통받는 많은 이들을 깊은 좌절감으로부터 구하여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1) 좌절감을 극복하는 첫번째 필수적인 단계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임으로써 좌절감과 싸움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좌절감을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결정을 내린 것이 됩니다. 잘 알다시피 과거에 지은 특정한 죄이든지, 혹은 보편적으로 느끼는 죄책감이든지간에 죄의식을 느끼는 것은 좌절감에서 나타나는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죄의식으로 시달린 사람은 자신이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할 뿐 아니라 다른 누구도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어느 누구도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점차 더 깊은 낙담의 수렁으로 빠져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람은 은혜로 베푸신 하나님의 용서와 죄로부터의 해방을 받아들임으로써 깊은 좌절감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불신자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셔들여야 합니다. 비록 잘

못된 죄의식이 있더라도 용서를 받아들이는 길만이 죄의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모셔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이사야 53 : 6)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에베소서 1 : 3, 7)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인간으로 출생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완전하신 삶을 사시고, 희생적인 죽음과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심으로 우리의 대리자가 되셨습니다. 그 분은 우리가 저지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을 믿는 사람들은 죄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와질 뿐 아니라, 스스로를 무가치한 존재로 느끼게 하는 무력감과 하나님에 대한 소외감에서 구원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들이고 죄 사함 받음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정서적인 면에서뿐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부 신자들까지도 심한 죄의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예수 안에 바로 자리잡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용서에 대하여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네, 그래요. 나도 한때는 구원의 기쁨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달라요. 나는 왠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을 것만 같아요. 내 죄가 나를 괴롭히고 있어요. 나는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만일 당신이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이전에 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또 죄 사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분을 영접했던 것처럼 이제 다시 하나님을 그의 말씀대로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곤궁에 빠지게 하고 괴롭히는 일상의 죄를 자백하여 성경에서 약속하는 깨끗해짐을 얻으십시오. 요한1서 1:9은 우리를 이렇게 확신시키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
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솔직한 고백으로 그에게 나아갈 때 기뻐하십니다. 그는 당신을 용서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그의 말씀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우리의 죄를 그에게 자백하고 잘못을 그 분 앞에서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의 완전한 용서와 죄 사함을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이 바로 깊은 좌절감에서 화평과 확신으로 올라가는 첫번째 단계입니다.

(2) 좌절감을 극복하는 두번째 필수적인 단계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 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삶에 대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영원히 좋은 분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불만스러워합니다. 자기의 외모, 성격, 능력, 주변 여건 등을 불평합니다. 부정적인 면은 크게 보고 긍정적인 면은 간과해 버립니다.

개중에는 다른 사람보다 유별나게 더 운이 없어 보이

는 사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육체가 병들거나 고독해지거나 만성 질병에 시달리고 남달리 궁핍해져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주어질 것입니다. 심지어 모든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우리의 마음 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알다시피 그리스도인이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자기의 외모나 성격 혹은 어쩔 수 없는 주변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다면 그는 정말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는 그 분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분은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한계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이상으로 우리에게 바라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십시오. 우리 스스로 감당해야 했던 우리 삶 속에 특별하게 임하신 것을 감사드리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의 몸을 비유하여 그리스도의 몸되신 교회의 각 지체들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한 존재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의 경우에 다른 사람보다도 더 영광된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람마다 다 나

· 림대로 쓸모가 있는 것입니다.

(3) 좌절감을 극복하는 세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가 원하시는 대로 절대적이며 완전한 주권을 행사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9:14-23에서 보면 이것이 분명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내용을 주의깊게 읽어보아야 합니다. 주변 여건이 불만스럽고 모든 것이 잘못 되어간다고 여겨질 때, 또 다른 사람들이 자신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느껴져 침울해질 때에는 로마서 9:20의 사도 바울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이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자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와 함께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피조물인 우리로서는 그가 제시하는 모든 것이 최선의 것임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창조주로서 그의 주권을 우리에게 행사할 때 그 분이

하시는 일이 가장 옳다는 것을 신뢰하며 기뻐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간청하게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
이까?” (창세기 18 : 25)

그리고 모세는 신명기 32장에 기록된 그의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이렇게 찬미하였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니 공의로우시고 정
직하시도다” (신명기 32 : 4)

그렇습니다. 우리는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신 이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여건을 한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하나님께서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행하실 완전한 권리를 갖고 계심—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의 완전하신 의지에 승복하는 것이 더 쉬운 일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좌절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단계가 됩니다.

(4) 좌절감을 극복하는 네번째 필수적인 단계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한 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올바른 바를 행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그것을 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좌절감이라는 영적인 패배를 피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듭나는 기적을 통해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그의 의를 주시며 우리를 천국의 시민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의 가족으로 삼으시며 교회와 다른 믿는 자들과의 친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지 영광의 보좌로 우리를 초대하여 도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예비하신 것을 의지하고 또 그것을 인정하

고 그리고 그의 능력과 도움 안에서 의로운 바를 행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할 때 오는 낙담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실제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누군가와 싸움을 했다면 가서 사과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에 참석하기를 게을리하였다면 다시 나가야 합니다(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고 있으며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고 계신지 확신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자비로움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친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아 보십시오. 도움을 주기 위해 우리 자신의 방식을 버리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과 힘 안에서 그 분이 원하시는 일을 시작하면 우리는 이미 올바른 길에 들어서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을 생각치 않고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삶의 공허함과 절망감으로부터 해방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생애 가운데 좌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울하게 되고 아무것도 옳게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떠한 구제책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경험한 바대로 이렇게 외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시편 42:11).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적절한 충고가 됩니다.

사도행전은 죄수로서 로마로 끌려가던 바울이 배 안에서 겪었던 삶의 경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서운 태풍으로 배와 모든 사람이 침몰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밤, 하나님의 천사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배에 있는 어느 한 사람도 죽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바울은 그 메시지를 믿고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사도행전 27:25)

여러분이여! 비록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용기를 잃게 되더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본다면 격려를 받게 될 것입니다. 시편기자의 조언처럼 “하나님만 바라십시오.” 바울처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당신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머리들어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2

큰 심

삶의 문제가 때로는 한꺼번에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남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 하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정 문제, 재난, 죄의 유혹, 기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 가운데서 정서적인 안정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연령에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까지도 매일같이 닥쳐오는 시험과 고난을 감

당하지 못하여 쓰러지게 됩니다. 정서적인 문제에 부딪친 그리스도인들이 전보다도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오는 중압감에 굴복해야 할까요? 우리는 바쁘게 돌아가고 해야 할 일이 많은 이 세상의 제물이 되어야 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거듭난 우리에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의 닻, 즉 산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삶의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훈과 권면을 주십니다. 따라서 이 단원을 통하여 주 예수 안에 있는 믿는 이들로 하여금 허락된 충분한 영적 자원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활용하여 상황을 적극적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앞에서는 좌절을 이겨내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근심에 대하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심은 오늘날 가장 보편적이면서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정서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근심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로부터 비롯된다고 합니다. 즉 근심의 요인은 우리의 직장이나 일상 계획, 또는 약속된 일이나 심지어 근심하게 하는 다른 사람들조차도 아니고 도리어 이

러한 외부적인 어려움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가 하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 보면 근심은 우리의 내부적인 문제이며, 따라서 그것을 해결해야 할 책임도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면서, 근심으로 인해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근심의 문제를 성공적으로 다루기 위한 첫번째 단계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근심에 싸여 있는 사람은 대부분 자신의 문제를 자기 혼자 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자기의 힘과 지혜로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시편 43:5에 있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좋아합니다. 근심에 싸여 있을 때에 그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구절 중간에 나오는 “하나님을 바라라”는 말씀에 유의하십시오. 이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

다.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근심을 이겨내기 위한 위대한 첫 발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2) 근심을 이겨내기 위한 두번째 단계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권면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립보서 4:6,7)

때로는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에는 “아무 소용이 없을 터인데 무엇 때문에 기도하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그 때가 바로 당신이 기도가 가장 필요할 때인 것입니다. 죠셉 스크리븐의 옛 찬송가에 이 내용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주님은 그의 자녀들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십니

다. 기도는 상황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까지도 변화시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노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이 소생되고 근심이 사라져 버립니다. 주님께 당신의 두려움과 근심을 쏟아놓으면 주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무한한 지혜, 그리고 당신을 향하신 무한한 사랑에 비하여 당신이 갖고 있는 문제들은 처음 생각한 것만큼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영혼에 평안을 가져다 주십니다. 가슴 속에 묻어 놓았던 긴장이 해소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순간 평안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 근심을 이겨내기 위한 또 하나의 단계는 “하루하루 살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 날에 족하니라”(마태복음 6:34)

오늘의 문제로도 우리는 벅칩니다. 왜 내일의 일을 오늘 염려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염려하는 것 가운데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염려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오랜 기간 동안 나는 아버님이 돌아가실까봐 거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내가 아직 어렸을 때에 아버님은 처음으로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습니다. 그 후 내가 신학교에 다니는 동안 같은 증세로 병석에 누우셨는데 그때 아버님은 의사로부터 완전한 휴식을 취하도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내가 처음으로 아버님 대신 ‘방송 성경 강좌’를 맡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님의 사역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버님의 충성스런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를 잘 알고 있던 나로서는 아버님의 죽음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역의 책임을 갑자기 내가 짊어지게 된다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밤늦게 전화벨이 울리면 가슴이 두근거리곤 하였습니다. 언제나 나의 생각은 “올 것이 왔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또 아버님의 소천에 대하여 염려한다는 것이 얼마나 죄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나의 염려를 정당화하였습니다. “나의 염려는 두 가지였는데, 그 중 하나는 훌륭한 아버지를 잃지 않을까 하는 문제였고, 다른 하나는 범 세계적인 사

역의 막중한 책임이 순식간에 나에게로 떨어지는게 아닌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었던지요. 주님을 단순히 의지하기보다는, 계속 의심하고 염려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마음의 평안과 평정을 빼앗겼는지 아십니까?

내가 나의 경험을 소개하는 것은 나의 실수를 통하여 배울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수년 동안 염려하던 그 일이 막상 닥쳤을 때에는 전혀 꿈도 꾸지 못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과 확신이 왔습니다. 신비스러운 주님의 보호하심과 힘 주심을 느낄 수 있었으며, 바울에게 주셨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속에 생생한 현실로 이루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H. P. 바커 씨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 주었습니다. “나는 어린 소년 시절에 어머니가 사과를 저장하시는 일을 도와드리곤 하였습니다. 나는 팔 한아름 가득히 담아 한꺼번에 다 운반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한두 걸음 겨우 지나 하나 둘씩 떨어뜨리기 시작하여 결국 모든 사과를 마루에 떨어드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웃으시면서 사과 하나를 내 작은 손에 쥐어 주시고 이렇게 하나씩 운반하라고 일러 주셨습니다.”

바커 씨는 이 경험을 다음과 같이 적용하였습니다. “일년, 아니 한 주를 한꺼번에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생각하기를, ‘이제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주여, 저를 도우사 당신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저에게 지금 필요한 만큼의 도움과 힘을 주옵소서.’”

이것은 좋은 충고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염려하기보다는 한번에 한 걸음씩 내디녀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내일의 모든 짐을 오늘 다 지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짐에 눌러 쓰러져 버릴 것이 뻔합니다. “한 날 괴로움은 그 날에 족하니라”(마 6:34). 내일 일을 오늘 걱정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 근심을 이겨내는 또 하나의 단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이 선포하였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예레미야애가 3:22,23)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간증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다음의 제이 단손 스미스씨의 시를 좋아합니다.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셨네
오늘까지 은혜로 계획하셨네
오늘까지 주께서 친절하게 제공하셨네
참으로 큰 손으로 제공하셨네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잘 돌봐주셨네
오늘까지 은혜로 지켜주셨네
그런데 왜 내 영혼과 마음이 이제 흔들려야 하나
우리의 앞날을 지금 밝고 있지도 않은데

(3) 근심을 이겨내는 세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래의 권면의 말씀을 주의깊게 읽으십시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히브리서 13:5,6)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는 것은 근심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처방입니다. 주께서 5절에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나는 외칠 수 있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나는 나를 위로하시고 지탱하게 하시며 힘 주시는 하나님께서 외로운 오솔길이든 캄캄한 집이든 병원 대기실이든 어디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4) 근심을 이겨내는 마지막 단계는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급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주 예수님은 근심에 대하여 직접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태복음 6 : 31-33)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를 돌보신다면 그의 자녀들이야 얼마나 더 잘 돌보아 주시겠습니까

까! 이것을 일단 알고 실제로 믿으면 우리는 근심을 이겨내는 노력에 성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음식이나 옷 그 이상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빌립보서 4:19에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약속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기록하기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러한 약속을 갖고 있으면서도 믿는 자들이 삶의 필요들 때문에 염려에 빠지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빌립보서 4:19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요구 사항을 들어 주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확신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필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끝없이 채워질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자원은 결코 동이 나지 않습니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당신이 근심을 이겨내는 데에 기억해야 할 여섯 가지 방법은 ;

-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 기도를 하십시오
- 하루하루 사십시오
-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하십시오

-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달으십시오
-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급을 믿으십시오

등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웃이 양계를 하였습니다. 그 양계장에 수탉이 하나 있었는데, 가끔 울어대는 울음소리가 그를 몹시도 괴롭혔습니다. 어느날 이른 아침 그는 주인을 찾아가 다음과 같이 항의했습니다. “당신의 못난 닭 때문에 밤새 한잠도 못 잔단 말이요!” 주인이 대답하기를, “알 수가 없군요. 그 수탉은 거의 울지를 않는데요. 사실 세어 보면 하루 온종일 몇 번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화가 난 그는 곧바로 양계장 주인에게 쏘아 붙였습니다. “그건 문제가 아니요. 그 수탉이 얼마나 자주 우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언제 울어 내 잠을 망칠지 모르는 것이 문제란 말이요!”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문제나 어려운 상황을 놓고 걱정하는 사람은 양계장 주인에게 화를 내는 사람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이 순간 순간 주시는 풍족한 은혜에 기뻐하기보다는 미래의 일을 앞당겨 근심하고 있습니다. 일어날지도 모를 일에 대하여 안타까워합니다. 누군가가 말하였습니다(나이가 들수록 나는 이 말의 참뜻을 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 가운데 대부분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있다면 다음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마태 복음 6:34)

3

고 통

인간의 고통 가운데 역사적이고 대표적인 예는 고대의 족장인 ‘욥’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잃었을 뿐 아니라,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받았으며, 심지어 자기 아내로부터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말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말은 그에게 고통을 더해 줄 뿐이었습니다. 욥은 자기 아내의 저주스러운 충고를 들었을 뿐 아니라, 그는 친구가 가장 필요할 때 친구들로부터도 외면을 당했습니다. 사

실, 그는 나중에 그들을 ‘고통을 안겨 주는 위안자들’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욥에게 자신의 죄로 인하여 이러한 고통을 받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 비극적인 고통은 그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형벌이라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러한 비난은 틀린 것이었습니다. 욥의 고통은 하나님의 분노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 욥은 다음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순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욥기 1:1)

욥이 성급한 말을 한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시련 중에 있을 때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욥기 13:15)

그리고 그는 후에 이러한 확신을 표현하였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욥기 23:10)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그 분이 목적하시는 것들, 그리고 그분의 방법들을 더욱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육체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친구들의 오해로부터 오는 좌절감을 인내로 감사한 후 내적 평화를 경험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라는 주제를 계속 공부하는 가운데 나는 여러분과 함께 인간의 고통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고통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까요? 인생의 어려운 경험들로부터 어떻게 최상의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1) 고통을 해결하는 첫번째 방법은 “순종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알고 난 후 고통에 처하였을 때, 우선 주 여호와 앞에 나아가 겸손히 순종하는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치유되기 위해 기도하거나, 어떤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위해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든지 완전히 순종하는 자세로 기도할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곤욕을 당할 때에 기도한다는 것은 자연스런 반응입니다. 비록 이러한 사람들의 영적인 관심이 냉정하고 무의미할지라도 말입니다. 절망중에 주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은,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병 낫기를 구하거나, 그가 곤경에 처한 것을 발견하고 극적인 상황 변경을 간구하는 것보다는 그 이상의 것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종종 있음을 여러분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실지도 모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을 계속 주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과 은혜를 드러내시기 위해 슬픔이나 고통중에 있는 우리를 선택하여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고 고통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실 것이며, 우리의 어려운 고통에 개입하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서신서에는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지 않은 몇몇 헌신적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어떤 종류의 육체적 질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 음란과 같은 영적인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영적인 문제였다면,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므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고린도후서 12:9)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치유될 수 없는 어떤 육신의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통을 제거해 줄 것을 주께 세 번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유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통당하고 있는 바울을 그의 영광을 위해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육체적 문제를 갖고 있었던 사람은 드로비모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20에서 바울은 병중에 있는 그를 밀레도에 남겨 두었다고 말하였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 병이 드로비모를 위한 하나님의 뜻으로 간주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하여 기적적인 치료나 즉각적인 치유를 위한 기도를 일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도 위장병과 또 다른 질병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로 하여금 치료하러 가도

록 하거나 믿음으로 고칠 것을 일체 언급하지 않았습
니다. 오히려 그의 믿음의 아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충
고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위해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디모데전서 5:23)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실제적인 예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어떤 신자들은 모든 질병은 그들
의 믿음이 강하기만 하면 치료될 수 있다는 잘못된 생
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 보십시오. 사도 바
울이 그의 믿음이 너무 약해서 계속 질병으로 인한 고
통을 당했다고 생각합니까? 바울이나 드로비모, 혹은
디모데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
병에서 치유됨을 받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물
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들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 뿐입니다. 나는 나의 아
버지이신 디 한 박사님이 늘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던
것을 좋아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이한 일을 하실 수 있
는지 여부가 우리의 관심거리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는 가능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시는 것

이 오늘날의 그분의 계획인지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분명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언제나 같은 방법으로 일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을 매우 다르게 처리하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는 이스라엘을 먹였습니다. 병이나 질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들의 옷은 해지지 않았고, 그들의 신발은 40년 동안 닳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도 이런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하시진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고통 속에 있음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겸손한 기도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여,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대로 하시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고난받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훌륭한 동역자임을 깨닫게 됨으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육체적 가시로부터 계속적인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디모데는 위장병과 여러 질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드로비모도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 병중에 있었습니다.

(2) 고통을 해결하는 두번째 방법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여기지 말고 오히려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히브리서 12:6-7)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고 계신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 중의 하나라고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번민과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기도를 할 때에는 치유받거나, 혹은 기적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십시오. 그런 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최선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 속에서 안식하십시오. 다음 성경 구절의 약속을 주장하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

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로마서 8:28)

지금 여러분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악을 이루고 있는 것같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자신이 하시는 바를 알고 계십니다. 어느 날엔가 여러분은 새로운 각도로 삶을 이해하게 되므로 심지어 고통과 걱정스러운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B. C. 러브레이스는 「암실에서 의 연단」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사진을 그리스도인의 경험과 비교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것은 사람이 사진을 찍으면 순간 노출이 나타나서 필름 위에 영상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필름에 담긴 영상을 완전하게 현상하기 위해서는 암실을 거쳐 처리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회심할 때도 마찬가지로 신자들은 구세주의 빛에 노출되어야 하며 그리스도 자신의 형상은 인화된 영혼에 새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노출’은 인화라는 처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리스도를 닮은 삶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드러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고린도 후서 3:18)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가 때때로 ‘암실에서의 연단’을 거치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베드로전서 4:1-2)

‘암실에서의 연단’이 힘들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런 연단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단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 고통을 해결하는 세번째 방법은 “믿음을 키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자세로 진실하게 기도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최선의 것을 행하시고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고통중에서도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배우며,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성경이 밝혀주는 주님과 주님의 언약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확신과 믿음의 진정한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과 지혜, 한없는 사랑을 소유하고 계신 분입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 경험이 이와 상반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항상 믿어야 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들의 병든 오라비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복음서를 쓴 작가는 예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 동안이나 그대로 계시던 곳에 머무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두 누이들은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지?” “왜 오시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 때문에 바쁘실거야” “사람들이 주님을 붙들고 있는 거야” “주님께서 더 이상 우리들에게 관심이 없으신 거야”라고 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생각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요한복음 11:5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정말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도 왜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고 했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서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나서야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지체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은 확실히 아닙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는 것과 그것을 행하셨던 시기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시급하게 원했지만 그보다 더 깊은 뜻에 의해 결정된 것입니다. 4절에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5절에서는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저를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하시는 일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끝났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는 그 이상 달리 원하는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읍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사물을 보시지 않고 우리가 행하는 것처럼 하시지도 않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여호와와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이사야 55:8-9)

밀턴은 눈이 먼 후에야 그의 위대한 기독교 문학 작품을 저술했으며, 헨델은 몸의 오른쪽이 마비되고 채권자들이 헨델을 감옥에 넣겠다고 위협하는 곤궁한 상태에서 그 유명한 오라토리오를 작곡했습니다. 존 번연은 옥중에서 춥고 배고플 때 「천로역정」을 저술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거나 가슴저리는 사별의 고통을 당한 후보다 더 효과적으로 주님께 봉사한 사람들에 대한 많은 실례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서 믿은 후에야 주님께 봉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위대한 사랑으로 모든 인류에게—우리 자신을 포함해서—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셨으며,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고자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 오직 그 분만을 믿지 않으시렵니까?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과 당신 자신을 스스로 구원시킬 수 없다는 것을 시인한다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십시오.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한복음 3:16)

4

슬픔

오늘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깊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해 동안 함께 살아 온 가까운 동반자를 잃고 이별의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남아 있는 긴 시간을 어떻게 지내야 할 것인가 생각하며 공허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이들은 자신이 그 사랑하던 사람을 대신하여 “음침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났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바랄지도 모릅니다.

이와 같은 형편이 바로 우리 자신이나, 또는 우리들이 돕고자 애쓰는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의 형편과 같은 것이라면 이번 시리즈의 결론에 해당하는 이 교훈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좌절감, 근심, 고통 등에 대하여는 이미 다루었으므로 이번에는 슬픔과 그 슬픔을 극복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먼저 인생의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슬픔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어려운 상황이란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아니, 그 누구보다 더 귀중한 사람을 잃어버린 경우를 말합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원하면서 다음의 세 가지 지침을 소개합니다.

- 지난날 받은 축복들을 기억하라
- 현실의 엄연한 사실을 인정하라
- 미래에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라

(1) 슬픔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첫번째 지침은 “지난날 받은 축복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슬픔에 빠져 있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은 앞서 떠난 사랑하는 사랑과 함께 나누었던 주님의

축복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보냈던 귀중한 시간들, 자녀들이 어렸을 때 함께 지냈던 좋은 시절들, 사랑하는 이와 단 둘이만 가질 수 있었던 아름다운 순간들, 그리고 당시에는 매우 어려웠으나 나중에는 늘 두 사람이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어 주었던 시련들 등 돌이켜 보면 많은 축복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회고를 하면 눈물이 난다는 것은 다 아는 일입니다. 그러나 잘 들어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눈물은 슬픔에 잠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적절한 눈물이 슬픔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얼마 동안 눈물을 안 흘렸거나 울어도 조금밖에 울지 않았다고 자랑하는 그릇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상가에 찾아온 친구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는 분들로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이러한 태도가 강인한 정신력과 영적 성숙함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은 희망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내 곁에서 빼앗긴다는 것은 상처를 받는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저 밝은 약속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으로 인

한 이별에는 아픔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물을 부끄러워해서는 안됩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과 우리의 정신적 고통을 육신적 방법으로 해방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눈물이 메마른 사람이나, 또는 순전한 의지력을 동원하거나 잘못된 자존심 때문에 울지 않으려는 사람을 볼 때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에는 서로 함께 즐거워했던 시간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인생의 여정을 이 시간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2) 슬픔 가운데서 위안을 찾을 수 있는 두번째 지침은 “오늘의 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깊은 슬픔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으로는 지난날의 축복을 회상하고 이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의 영혼은 죽은 후에 몸에서 분리되어 하늘나라 그리스도의 계신 곳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사는 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무덤 안에 있는 저 육신은 인격적인 그 분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잠시 살았던 장막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그

영혼은 죽음과 동시에 영광의 자리에 옮겨져 지금은 천국의 기쁨들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며, 주님의 재림과 함께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고린도후서 5:6-8)

8절의 마지막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바울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을 기꺼이 원한다고 했습니다. 바울과 우리가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죽음을 맞이하여 이 땅에서 눈을 감는 순간 저 하늘 위에 계신 구세주의 얼굴을 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바로 그 순간, 그 분들은 천국의 공기를 호흡할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시로 표현한 L. E. 싱어의 글을 좋아합니다.

물에 내려보니
거기가 천국이고
손을 만져보니

하나님의 손이오
새 호흡을 내쉬니
거기가 천국이고
영광 가운데 들어가니
거기가 본향이라

영혼이 몸을 떠나는 것은 주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슬픔중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위안이 되는 말씀인지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물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에 공허가 찾아옵니다. 상실로 인한 슬픔은 반드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영광중에 있다는 현재의 사실을 기억하면 상처는 줄어들고 무거운 짐도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이것만 잘 기억해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죄로 저주받은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오기를 원치는 않을 것입니다. 차라리 우리는 그들과 다시 만나 다시는 헤어지지 않게 되는 그 날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당하는 모든 고통이 이제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는 다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절망도 고통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영원히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대신 놀라운 천국의 영원한 즐거움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인정할 때 쓰라린 슬픔의 가시는 빠져나갈 것입니다. 대부분이 각자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의 사연들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퍼부었던 가혹한 말들을 되돌려 담고 싶어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것들은 더 해주고 싶고 훨씬 다르게 해주고 싶은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마땅히 친절히 대했어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쳐 버린 예도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좀 더 많이 했더라면 하고 생각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러한 느낌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로 지나치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그 이유를 잠깐 동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지금에 와서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그 말이나 행동을 했던 안 했던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다면 그는 이제 이 세상에서 겪어야 할 모든 근심과 상처로부터 영원히 벗어난 다른 곳에 있습니다. 모든 고난의 세월과 쓰라린 언어들도 다 잊혀진 바 되고 천국의 영광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 분에게 어떤 언행으로 대했었나 하는 것은 그 분과는 이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괴롭히는 후회와 슬픔의 행위는 금물입니다. 이렇게 했었다면, 저렇게 했었을 걸 하고 생각하는 것도 금물입니다. 그와 반대로 마구 하였던 말들이나 잔인하게 대하였던 행동들이 이제는 지나간 바요, 잊혀진 바요, 용서한 바(주님께 고백하면)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주 예수 곁에 함께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품속에 안기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다면 지난 날의 축복을 기억하면서 현재의 사실도 함께 생각하십시오. 함께 지내온 날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별한 그 분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고 기억에 남아 있는 모든 후회되는 일들을 떨쳐 버리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나쁜 일들은 저 세상의 좋은 일들로 바뀌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왕 중 왕이시요 모든 주의 주되신 분과 함께 변치않는 즐거움의 자리로 간 것을 기뻐하십시오.

(3) 슬픔 가운데서 위안을 찾을 수 있는 세번째 지침은 “미래에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지난 날의 축복을 기억하거나 현재의 사실을 가지고 기뻐함으로써 슬픔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외에 앞서 떠난 사람들을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는 것도 같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사랑하던 믿음의 사람들과 다시 함께 있게 된다는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하신 영원한 축복을 함께 즐기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라 할지라도 믿는 사람을 영원히 분리시킬 수는 없습니다. 도리어 재회와 영원한 축복의 약속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의 앞날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 죽은 신자들이 살아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공중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일으킴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데살로니가 전서 4:13,14)

사도 바울은 또 이와 같이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16,17)

주 예수께서 큰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아마도 오늘일지도 모릅니다. 구원받은 영혼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가 세상에 다시 올 것입니다. 죽었던 성도들의 무덤은 열리고 부활한 육신과 영혼은 재결합될 것입니다. 이들은 살아서 믿는 사람들과 함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기 위해 올라갈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천국의 기쁨을 나눌 것입니다. 18절에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쓰여 있는 것은 참으로 적절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던 사람이 떠난다는 것은 분명 상처받는 일인 줄 압니다. 그 사람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갑자기 세상 전체가 공허해지는 것 같습니다. 마음 속엔 고통이 생깁니다. 그러나 다시 만날 저 영광의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즐거워

할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생각하십시오. 아무리 슬픔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밝은 약속을 가졌을 때 결코 소망 없는 자와는 같지 않을 것입니다.

드와이트 엘 무디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우리를 위로합니다.

“아드리아 해의 바닷가에는 망망 대해로 고기잡이를 떠난 어부의 아내들이 한밤중에 바닷가로 나아가 어느 아름다운 찬송가의 첫 구절을 노래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남편이 화답하는 둘째 구절의 찬송 소리가 들릴 때까지 가만히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모두 행복한 것입니다.”

무디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먼 데서부터 사랑하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듣노라면 저 편에 우리의 본향인 천국이 있다는 속삭임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지상의 바닷가에서 찬송을 부르면 아마도 시간이라는 모래 위에 음악이 되어 울려오는 아름다운 메아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천국의 바닷가에서 우리가 오기를 영광중에 기다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보고 싶어하듯이 그들 역시 예수님이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것이며, 또 예수님을 아는 우리들은 우리의 영원한 집에서 함께 거하게 될 것이라

고 생각하면서 즐거워합니다.

화니 크로스비도 틀림없이 같은 생각을 하면서 이 시
를 지었을 것입니다.

오 구름없는 저 밝은 데서
날 기다리는 저 친구들
저들 인도한 발길 따라
날 불러 오라 하네
그들을 보겠네, 그들을 알겠네
그들의 사랑의 노래 난 듣겠네
저 하늘 아버지 집에서
우리 모두 할렐루야 노래하겠네

다시 묻습니다. 오늘 당신은 울고 계십니까? 상처받
은 가슴으로 아파하십니까? 이 공허함이 영원히 사라지
지 않을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소개한
세 가지 지침을 마음에 새기면서 슬픔으로부터 위안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날 받은 축복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그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었던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오늘의 현실을 인정하십시오

육신의 장막인 몸은 비록 무덤에 누워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이는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가 계신 천국에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고통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미래에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십시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이별은 결코 영원한 것이 못 됩니다. 부활과 다시 만날 날이 살아계신 구세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은 생각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도 그날이 오늘일는지도 모릅니다.

1 절망에서 희망으로

우리가 좌절감, 고통, 슬픔에 잠길 때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

2 교회는 누구에게 필요한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즐거운 신앙생활 안내

3 오 신실하신 하나님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죄 용서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

4 복있는 사람

진정한 행복이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참 행복의 설계

5 균형있는 가정생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한 곳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있는 가정생활

6 왜 살아야 하나?

삶의 의미와 진정한 만족은 어디에? 하루하루를 뜻있게 사는 길

7 행복한 결혼생활

성경에서 말씀하신 성공적 결혼의 10가지 요소

8 남자다운 남자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남자! 그 모습대로 완성되어 가는 길

9 여자다운 여자

하나님이 바라시는 여자의 모습!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인의 삶

10 걱정없이 살고 싶다

왜 걱정합니까? 걱정없는 삶의 성경적 해답

11 다시 찾는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서
첫사랑의 감격과 활력을 회복하는 길

12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성경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다섯 가지 기본원리

한국 오늘의 양식사

■ 구독 신청과 독자 주소 · 전화변경 받는곳

전 화 : (0342) 780-9565~7

F A X : (0342) 780-9569

E-mail : odbkor@hitel.net

인터넷 : <http://www.hallelujah.or.kr>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32 우편번호 : 463-070

■ 선교헌금 안내

오늘의 양식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기 위하여 권당 450원의 제작비를 도울 선교헌금을 보내 주심으로써 문서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계좌번호 · 예금주 : 「할렐루아선교원」

한빛 : 122-143075-01-101

한빛 : 132-05-108980

국민 : 097-01-0199-703

서울 : 16301-1886909

외환 : 026-13-33750-7

제일 : 107-10-109840

농협 : 001-01-214911

조흥 : 308-01-137748

우체국 : 012773-0026681

■ 섬기는 분들

발행인 / 김상복 편집장 / 김승호 고문 / 최태의 위원장 / 김경현

봉사위원대표 : 총무 / 차일환 기획 / 정호균 회계 / 최석주 관리 / 이종규

출판 / 이덕진 발송 / 임길택 홍보 / 김대환 상담 / 김영자

제작 / 소망사 : 733-4242 · 팩스 : 733-4243

신앙 성장 시리즈 ①

절망에서 희망으로

인 쇄 / 1999. 10. 25

발 행 / 1999. 10. 30

발행처 / 한국 오늘의 양식사

전 화 : (0342)780-9565~7

신앙 성장 시리즈 Ⅰ

『절망에서 희망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원치않는 여러 가지 고난에 처하게 되며 이때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이러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이 소책자는 우리가 좌절감에 빠질 때, 근심에 쌓일 때, 고통을 당할 때 그리고 슬픔에 잠길 때 어떻게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좌절감에 빠질 때
- 근심에 쌓일 때
- 고통을 당할 때
- 슬픔에 잠길 때



Radio Bible Class

이 책자는 미국의 R.B.C(Radio Bible Class)에서 발행한 "How to Get Up ... When you're Down"을 『한국 오늘의 양식사』에서 그리스도인의 신앙 성장을 위하여 번역 출판한 것입니다.